

美대학교육의 철저한 자기반성

앨런 블룸의 「미국정신의 종말」

崔鍾庫

서울대 법대 교수 · 法思想史

내가 앨런 블룸(Allan Bloom)의 「미국정신의 종말」(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1987)을 처음 소개받은 것은 미국에서 이 책이 나온 몇달 후 일본 동경대학의 나가오(長尾龍一)교수가 당시 미국에 있던 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였다. 미국사상사에 밝은 그분이 나에게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적어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데에는 필시 무슨 뜻이 있을 것같아 당장 서점으로 달려갔다. 하버드대학 근처의 서점에는 갓나온 페이퍼백의 이 책이 수십권 쌓여 있어 장기간 베스트셀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의 외국생활이라 철저히 읽지 못하고 풍성한 소문만 듣고 왔는데, 이번엔 한국에 번역판(이원희 옮김, 범양사출판부)이 나와 마음먹고 며칠에 걸쳐 정독하였다.

한해에 100만부 이상 팔린 화제작

한마디로 역시 문제작이라 느껴졌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로 군림한 미국의 독서계와 지성사회가 수준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알다시피 미국 시카고대학의 사회사상 담당교수인 블룸이 1987년에 내, 한해에 100만부 이상 팔린 선풍적 인기의 화제작이다. 블룸(1930년생)은 예일대학, 코넬대학, 토론토대학,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과 프랑스의 파리대학에서도 가르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고전과 루소, 칸트, 니체, 하이데거에 이르는 유럽대륙의 사상사를 깊이 이해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역시 이러한 저자의 독특한 체취가 발휘되고 있다. 제1부는 오늘날 미국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백지상태, 책, 음악, 대인관계 특히 자기분위, 평등, 인종, 성(性), 분리, 이혼, 에로스로 나누어 다루고 있고, 제2부는 '미국식 허무주의'라 하여 독일과의 연계, 자연상태, 자아, 창의성, 문화,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제3부에서는 대학의 문제로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부터 하이데거의 총장취임 연설문까지, 1960년대, 학생과 대학, 인문교양교육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식 허무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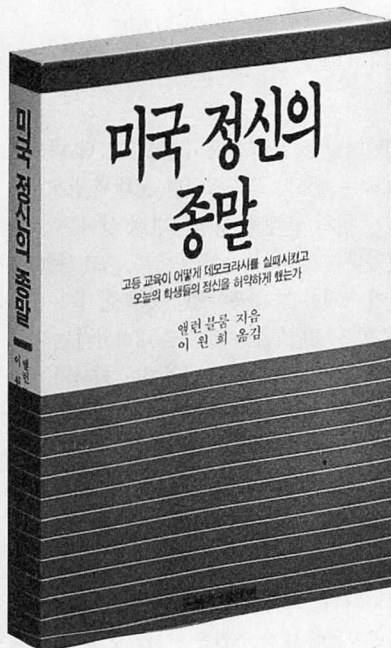
블룸은 사회사상 내지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타이틀에 비하

미국대학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는 블룸교수의 시각은 자못 비판적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를 받쳐온 권위와 전통이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문교양교육 강화를 치유책으로 제시한 그의 주장은, 몸살을 앓는 우리의 대학교육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면 유럽고전에 매우 해박한 학자라는 인상이 전편에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현학적이고 단정적, 역설적인 주장같이 보이는 데도 있지만 그의 논지는 사뭇 진지하고 철저하며, 준엄하고 우울하기마저 하다. 그는, 미국인이 유럽에서 건너올 때의 '미덕'을 그런대로 잘 유지해왔지만 1960년대 이후 현저히 파괴되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등과 상대주의를 주장하다보니 삶의 질과 권위와 경험(전통)의 중요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것이 좋다고 만족하고, 보아나온 것에 대해 무식하게 된 미국인의 기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절망감이 특유하게 소화된 행복한 결말이 '미국식 허무주의'라 하고, 미국식 생활을 '전가족을 위한 디즈니랜드판 바이마르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황홀경에 빠져 있는 미국에는 유럽식 비애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따라서 대륙의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문화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런 면에서 문화의 실패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문화라 한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개인이 아침에 소출을 갖고 나와 팔고 저녁에 수익을 갖고 산 물건을 혼자 즐기기 위하여 돌아가는 질서 없는 시장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놀랍게 미국인들이 발전시킨 것은 (원래 흡스에서 시작된) '권리'(right)의 관념을 직접 소화하여 일상화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여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토크빌의 말을 저자는 지지했다.

이러한 미국사회와 문화의 '파멸'에 대하여 근본적 치유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 대학인데, 블룸에 의하면 대학이 먼저 병들고 와해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미국에서는 위대한 사상의 고향이 대학인데, 60년대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그 고향을 모독한 것이라



한다. 1930년대의 독일대학이 합리적 탐구의 구조를 해체당한 경험을 60년대에 미국대학이 경험했다. 미국대학은 19세기의 독일대학을 모델로 삼았는데, 60년대 이후는 유럽을 활용하려는 창구가 닫혔고 학생들도 유럽에 대한 동경이 사라졌다. 대신 제3세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위장된 제국주의라고 블룸은 말한다.

그는 진정한 교육은 영혼이 동경을 느끼고 조건부나 강압 아래서는 견딜 수 없는 초조감을 느끼는 독립적 정신을 길러주는 것, 진실과 열정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평등과 흑인, 여성해방운동 등 고도로 이념화된 학생대중에게 양보하고 말았다고 개탄한다.

이 책의 마지막말은 이렇하다. "정치에서처럼 자유의 운명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의 체제로 넘어왔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철학의 운명도 우리의 대학으로 넘어왔다. 이 두가지가 이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중요성은 막대하고, 미래가 우리의 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무척 의문시된다."

이처럼 블룸은 끝내 낙관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회의적이라고보다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의 대안이란 인문교양교육의 강화, 소크라테스적 정신, 철학적으로 사색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참된 교육이라 하겠지만 누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각계의 찬반여론 빚발쳐

여기에 이 책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많은 비판을 몰고오는 이유가 있다. 출판되자마자 대학 당국자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책이 반동적이며 비민주적 저서라고 일제히 공격하였다. 그런가 하면 블룸은 미국 전지역에서 초청받아 하루에도 몇회씩 강연을 해야 했다. 1년만에 100만부 이상 팔렸고, 88년 10월에는 「타임」지의 맥휘터 수석특파원이 그와 특별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러트거스대학의 바버(B. Barber)교수가 이 책을 "일반독자를 위해 쓴 가장 심각한 반민주적 저술의 하나"라고 한 비평에 대해, 블룸은 "그런 굉장한 정치용어로는 나는 엘리트주의자요 성차별주의자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사회든 지혜로운 엘리트들 지도자로 키워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적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은 떠분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책이 한국에서 어떤 반향을 받을지 상당히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의 대학과 사회를 논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학과 사회현실과도 흡사한 얘기가기 때문이다. 일제하 독일식 대학과 문화패전에서 해방후 미국식 교육과 문화가 범람하였고, 60년대 이후 대학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대변혁을 치렀으며, 이제 80년대에는 反美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대학은 양적 증가와는 별도로 내면적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었고, 토대가 흔들릴 정도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흔히 '민주화'라는 자칫 잘못된 일률적인 정치적 해석만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블룸의 비판적이다시피한 비판적인 자기반성이 미국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부럽고, 이런 양심적 소리가 있는 한 미국문명은 결코 로마제국 말기와 같지만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근본적 주장과 그를 둘러싼 토론이 활발할 때 그 문화는 살아 있는 것이요, 반대로 정치적으로든 대학내부적으로든 학자 개인적으로든 뭔가의 확실성에 의하여 강요된 주장과 침묵이 지배할 때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블룸의 책은 '타산지식'이라기보다 바로 우리 '발등의 불'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교훈서라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문화와 유럽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 한국문화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깊이있는 시사를 제공해주는 책이라 생각한다.